

## 계량소 운영으로 회원들 권익에 앞장



▲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로 회원 권익에 앞장서는 박용삼 지부장

지난 1~2일에는 경남 고성에서 전국육계인대회가 개최되었다. 복철을 앞둔 가운데서도 전국 육계인 250여명이 고성지역을 찾았다. 본고는 이번 대회를 유치하고 행사를 주관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은 부산경남지회 고성지부를 찾아 양계 당면현안과 발전방안을 들어보았다.

### 일반사육 100%인 고성의 육계산업

경남 고성지역 양계산업은 해변가를 끼고 바닷바람을 맞으며 다년간 외롭게 발전해 왔다. 가까운 섬인 거제도과 함께 오지에 속하면서 계열화업체들의 발길조차 들여놓기 힘든 지리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육계의 경우 거제도지역과 협업체를 구성하여 일반사육을 하면서도 양계인의 권익을 위해 지구책을 강구해 왔다.

경남지부 고성육계지부는 지난 1993년 결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박용삼 지부장은 지난 1998년부터 8년여 동안 지부를 이끌어 오고 있는데, 고성지역은 산란계보다 육계를 하는 농가 비중이 높은 지역이다. 양계를 하는 농가는 전체 35개 농가가 있는데 이중 육계와 토종닭 농가가 대부분이며, 산란계 농가는 손안에 꼽을 정도로 적은 편이다. 현재 고성지부의 회원은 13명으로 비교적 규모화된 농장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육계 회원들의 규모는 총 35만수를 사육하고 있다.

고성지역은 양산 등 가까운 인근 지역보다 기온이 2~3℃ 낮은 관계로 양계를 하는데 최적지라 설명한다. 바닷가로부터 2.5km 이내에 모든 양계장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한 여름 기온이 낮게 유지되는데, 지난 1990년대 중반 타 지역에서 38℃이상의 폭서가 왔을 때 고성지역은 32~33℃를 기록할

정도로 기온이 낮아 혹서피해가 없었다고 한다.

지부를 이끌고 있는 박용삼 지부장은 1993년부터 양계업을 시작하여 현재 고성군 거류면에서 산란계 10만수를 사육하고 있다. 회원중에서 최을림 총무와 함께 유일하게 산란계를 경영하고 있다. 산란계와 육계가 한 모임을 이룬다는 것은 타지역에서는 상상하기 힘들지만 고성지역에서는 지부장이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기 때문에 가능하며, 항상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박지부장은 양계 초기에 육계를 사육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산란계를 하고 있더라도 육계인들의 현실과 고충을 잘 파악하고 있어 지부를 운영하는데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 안정된 양계업과 회원권익을 위해

박용삼 지부장은 양계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안정된 업을 영위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강조한다. 지자체 시대에 맞게 군(郡)과의 협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열의를 갖고 회원들을 위해 뛰는 자세를 보인다. 지역활동으로는 지역 라이온스 클럽 회장을 맡고 있으며, 축산경영인연합회장도 역임한 바 있어 회원들이나 군 관계자들과의 유기적인 고리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군으로부터 안정자금을 지원받아 타지역 보다 안정적인 양계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있다.

고성지부에서 가장 자신있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계근소(계량소)의 운영이다. 모든 회원이 언제든지 계량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열쇠를 공급하고



▲ 살림꾼인 최을림 총무(좌)와 박용삼 지부장(우)

있는데 회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가에서 닭을 판매하는데 정확히 사육한 노력을 평가해 주기 때문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또한 미생물 제제 100%지원으로 농가의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내년부터는 깔짚공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톱밥에 대한 지원예산 신청을 준비중에 있다.

앞으로 고성과 거제지역도 계열화 바람이 불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청정지역이고 교통도 예전보다 좋아졌기 때문에 계열화 업체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현재는 100% 일반사육을 하면서 협업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제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성지부는 매주 둘째주 수요일 매월 모임을 갖고면서 친목도모와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고성지부는 특히 농장 사장 뿐 아니라 부인들까지 함께 모임을 자주 갖고 있다. 부인들도 직접 농장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자료나 정보를 공유해야하고, 가정의 화목을 다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세계 공룡엑스포가 열리는 동안 고성지부에서는 육계인들이 모이는 전국 육계인 대회를 유치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 박 지부장은 모든 행사를 준비하면서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이번 대회를 계기로 양계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했다. (취재 | 김동진 편집장)



▲ 회원들은 자주 모임을 갖고 다양한 정보를 교환한다.